

부산·경남지역의 제헌국회의원 분석

박 철 규

(진실화해위원회)

目 次

- I. 머리말
- II. 제헌국회 선거 직전의 정치정세
- III. 제헌국회 입후보자 현황
- IV. 제헌국회 당선자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제헌국회는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동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북제주 갑·을 지역구(1949년 5월 10일 선거)의 2인을 제외한 전지역구에서 193인의 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게 되었다.¹⁾

제헌국회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국회 내의 청구회, 신정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 반민특위 등 특정 활동이나²⁾ 국회프락치사건, 여순사건 등 특정사건³⁾, 헌정제도,⁴⁾ 정치 갈등⁵⁾ 등을 주제로 삼아 진행되었으며, 정치공학 등으로 접근하여 제1공화국이란 큰 틀로 연구되기도 했다.⁶⁾ 다만 제헌의회에 한해서는 소장파 분석이란 연구가 있다.⁷⁾

선거자체를 연구주제로 한 것은 이기명, 이임하, 박승규의 연구

1) 국회사무처, 1986, 『제헌국회 경과보고서』, 1쪽.

2) 이정은, 2003 「제헌국회기 청구회·신정회의 정치활동과 노선」, 연세대학교 ; 이지훈, 1998, 「제헌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한양대학교 ; 이강수, 2003 「반민특위연구」, 나남 ; 허중, 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3) 윤지현, 2002, 「국회 프락치 사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김득중, 1994, 「제헌국회의 구성과정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4) 박석원, 1999,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헌정제도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5) 신수경, 1998, 「제헌국회와 정치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6) 한배호편, 1990, 『한국 현대정치론. 1 : 제1공화국의 국가형성, 정치과정, 정책』, 나남 ; 백영철, 1995, 『제1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 강혜경, 2005, 『제1공화국 초기의 국민통제』, 한국학술정보

7) 백운선, 1992, 「제헌국회내 '소장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 있다.⁸⁾ 그간의 연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력 담지자의 인물내력과 정책방향을 분석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소속정당 분포, 입법활동 등의 의정활동 등을 주로 분석하면서 성격을 규정해 왔다. 이들 선행연구가 제헌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정부 수립초기 국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제헌국회 입후보자나 당선자들의 인물내력이나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주요 현안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연동시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아 한국, 특히 지방의 정치적 리더십 형성과정과 성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제헌국회의 입후보자와 당선자를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지방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선자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의원 선거와 제2대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911명(부산·경남 147명)과 1,696명(부산·경남 173명)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입후보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낙선하지만 후일 한국·지방의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전국이 아니라 경남지역으로 제한하고 제헌국회로 한정시킨 것은 8·15 해방 이후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위 좌익세력이 조락하고,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의⁹⁾ 감시 하에 남한지역에서의 선거가 실시된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적 리더

8) 박승규, 1987, 「1952-1960 전남지방 자치선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이기명, 1990, 「5.10 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정치세력의 대응」, 연세대학교; 이임하, 1994,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9)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이란 용어는 당시에 신문지상 등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함

십에 대해 지역을 사례로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Ⅱ. 제헌국회 선거 직전의 정치 정세

미군정 당국에서는 단선, 단정수립이라는 방침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 좌익지도자를 검거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시켜 왔으며,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는 이를 적극 옹호하는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당시 경남의 일부 대중들은 미군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였으며 당시의 좌익은 본격적인 반미, 반유엔 선전을 가속화시키면서 대응하였다.¹⁰⁾

1. 2·7 파업 - 유엔 조선임시위원단 내한 반대

1948년 1월 1일을 맞아 경남도지사 김철수와 경찰청장 박명제는 “당파적 감정을 초월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도민과 분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¹¹⁾ 그러나 당시의 사정은 이러한 담화만으로는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즉 부산에는 56개소의 쌀 배급소가 있었는데 쌀 배급이 작년 12월 하순경 분을 70% 정도 밖에 배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부민의 원성이 자자하였으며 임금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¹²⁾

게다가 식량배급 감축에 대비하여 인구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유령배급자를 가려내었다. 이러한 것은 부족한 식량을 적절히 분배하여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정계의 친

10) HQ, G-2 Periodic Report 48.1.2-1.7-1.13-2.7.

11) 『민주중보』 48년 1월 1일.

12) 『민주중보』 48년 1월 10일·1월 18일·30일·2월 1일 ; USAMGIK 5권 25쪽.

좌익인사들이 당시 좌익 활동가들의 식량배급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후일 단독선거를 실시했을 때 유권자등록을 쌀 배급표와 교환했다는 당시의 증언으로 보아 이를 위한 예비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¹³⁾ 또한 군정 당국에서는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개최시간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허가를 취소해 버렸다.¹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고는 악화되고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이 요원해진 데다가 1948년 1월 8일 ‘유엔 조선위원단’이 유엔 감시하의 단정수립을 위하여 서울에 오게 되자 일부 대중은 남한만의 단정수립에 항의하면서 2·7파업을 단행하였다. 물론 2·7파업과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좌익단체의 조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2·7파업은 경찰당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인민봉기 70건, 데모 103건, 봉화 204건, 파업 50건, 동맹휴학 34건을 수반하였고, 8,479명이 체포되어 1,279명이 송청되었다고 한다.¹⁵⁾ 이와 같이 전개된 파업과 시위에서 전평은 혹심한 탄압을 받아 많은 희생자를 냈다.

경남지구에서는 부산의 철도 3,000명, 해원 1,450명, 부두 3,200명, 남전, 조방, 삼화고무, 체신 등에서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을 단행했고 그 외 70개 공장 15,000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양산군에서는 7개면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고 진주에서 7,000명, 마산에서 12,000명, 함안에서 3,500명이 시위를 벌였다.¹⁶⁾

13) 『민주중보』 48년 1월 14일. 신영갑의 인터뷰.

14) 『민주중보』 48년 1월 22일.

15) 『조선일보』 48년 2월 12일 ; 『독립신보』 48년 2월 26일 ; 『민주중보』 48년 2월 12일, 27일.

16) 전평측의 종합보고는 『조선일보』 48년 2월 12일 ; 『독립신보』 48년 2월 26일자 ; U.S.Army, HUSAFIK 3권 414쪽 참고. 도내의 피해상황은 『민주중보』 48

당시 외쳐진 구호는 “조선의 분할침략 계획을 실시하는 유엔 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양군 동시철폐로 조선 통일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민에게 맡겨라.! 국제 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파를 타도하라.!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노동임금을 배로 올려라.!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 등 9개 항이었다.¹⁷⁾

한편 2·7파업에 이어 일부 대중들의 투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박명제 제7관구청장은 “의의 없는 희생 없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경고문을 발표하였다.¹⁸⁾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연기되던 유엔조위가 1948년 2월 20일에 내부하자 군정당국과 우익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련준비위원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의사가 통일과 양군 철폐에 있음을 반영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¹⁹⁾

박명제 환영준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의무완수를 충심으로 기대 한다”고 언명하였으며²⁰⁾ 한독당 도당부에서는 “군정연장 책모하는 소수배의 선전에 의혹 많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²¹⁾ 이러한 사실은 군정당국과 우익은 ‘단선, 단정반대 = 군정연장’이라는 도식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며 결국 총선을 통하여 남한만의 단정수립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년 2월 13일 ; HQ, G-2 PR(48.2.9) 참고.

17) 대검찰청수사국, 1981, 『좌익사건실록』, 제1권 372쪽.

18) 『민주중보』 48년 2월 12일.

19) 『민주중보』 48년 1월 10일·16일·2월 14~16일·18일·19일; HQ, G-2 PR(48.2.20).

20) 『민주중보』 48년 2월 22일 ; USAMGIK 6권 381쪽.

21) 『민주중보』 48년 2월 22일.

그러나 이러한 담화가 나오기 얼마 전 총선거에 대한 공보부 조사에서는 “양군철폐와 통일정부”를 바라는 것이 다수였다.²²⁾ 이러한 사실은 당시 군정당국과 우익들의 일련의 행위가 대중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 세번째로 맞이하게 된 3·1기념행사 역시 이전의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행사주최문제를 놓고 관, 민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히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행정책임지의 주최로 거행되고 말았다. 김 도지사는 축사에서 “애정침략 하보다 많은 고난” 운운하였으며 도공보과에서는 “민족자결로써 완전자주독립을 전취하자!”는 요지의 축사를 하였다.²³⁾

한편 제7관구 경찰청장 박명제는 1948년 3월 5일 출입기자단과 회견하여 5월에 실시될 총선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확보를 위하여 경찰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2월 7일 사건에 피검된 자들 중 주모자 외는 석방하겠다고 언명하였다.²⁴⁾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의 대중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군정당국의 단선을 통한 단정수립이라는 기본방침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에 일부 대중은 LST 침몰기도, 경찰지서와 경찰공격, 유엔조위 활동방해 단체조직, 통신시설파괴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갔으며, 새로운 투쟁형태를 모색해 나갔다.²⁵⁾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군정당국과 우익진영은 단선단정준비를 착착 진행시켜갔다.

22) 『민주중보』 48년 2월 14일 ; HQ, G-2 PR(48.3.9).

23) 『민주중보』 48년 2월 26일 · 3월 1일.

24) 『민주중보』 48년 3월 6일.

25) 각 지방의 투쟁에 대한 것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김천영, 1986, 『연표 한국현대사』, 한울림, 1,005·1,008쪽; HQ, G-2 PR(48.2.11), (48.2.?), (48.2.28), (48.3.2), (48.3.3). USAMGIK 5권 799쪽.

2. 5·10 단선단정반대와 선거준비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되었다.²⁶⁾ 이에 따라 1948년 3월 중순 총선거를 앞두고 도내 부윤군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경남도를 31개의 선거구, 부산부에는 4구 특위 등으로 나누었다. 박명제 7관구 경찰청장은 3월 12일 경무부에서 열린 경찰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 관내 치안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소위 보갑대(保甲隊)라는 자위대를 조직하여 치안을 보조하게 하고 7관구 각 서장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에만전을 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호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월 하순에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²⁷⁾

유엔조위에서는 3월 20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감시위원회 설치 등 선거감시의 구체안을 결정하고, 동월 23일에는 중앙선거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 지방감시반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²⁸⁾

<각 지역별 감시반>

제1반 서울 개성 인천 춘천 제주도

제2반 조치원 청주 대전 전주 송정리 광주

제3반 대구 부산

또한 국회의원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각도의 지사 및 지방심리원장의 추천을 받아 3월

26) 자세한 내용은 군정청판보 법령 제175호 1948년 03월 17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75~76쪽 참조

27) 『민주중보』 48년 3월 17~20일 · 22일 · 24일 · 25일.

28) 『조선일보』 1948년 3월 28일.

22일 각 도선거위원회위원장 및 위원과 후보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다.²⁹⁾

<경상남도위원회>

위원장 변택주 후보위원장 한성수

위 원 박희창, 윤상은, 권영운, 강재호, 탁창덕, 변기성, 김정설,
김병서, 유 찬, 한봉세, 리원배, 이동순, 이현재, 배극성,
금창욱

이에 민독경남지부당에서는 선거불참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단선단정을 추진하고 있던 우익 정당과 사회단체에서는 박기출, 김칠성, 김노철 등이 마치 선거에 참가, 협력하는 것같이 선전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³⁰⁾ 그리고 한민당 경남당부에서는 “총선거에 임하여 만천하 동포에게 고함”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선은 독립을 달성하는 길, 건국의 이상(민족, 평등, 자유)을 실현, 선거를 완전히 수행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³¹⁾

유엔조위에서는 선거일 연기거부 감시단의 지방여행 일체 및 지방에 있어서의 환영행사 사절에 관하여 4월 1일 공보 제 50·51·52호를 발표하였다.³²⁾ 참고로 현지감시단의 여행일정 가

29)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8년 3월 23일, 1948년 3월 25일, 26일 : 기타 자세한 것은 앞의 자료 참조.

30) 『민주중보』 48년 3월 26일.

31) 『민주중보』 48년 3월 28일. 근로인민당에서는 선거방해활동은 전개하지 않을 것이며 당원들의 선거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Q, G-2 PR(48.4.3), (48.4.8)).

32) 『조선일보』 1948년 4월 2일.

운데 부산·경남 지역은 제3감시단으로 구성원은 엘살바도르 부대표 린도, 프랑스대표 폴봉쿠르, 중국 부대표 왕공행(王恭行) 및 사무국원 5인이다. 선거일자는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1일 연기하여 5월 10일로 확정하였다.³³⁾

<공보 제 51호 현지 감시단의 여행일정> 4월 5일~4월 10일
제3감시단

1) 대구-경북-월요일-4월 5일

대구-경북-화요일-4월 6일

2) 부산-경남-수요일-4월 7일

부산-경남-목요일-4월 8일

부산-경남-금요일-4월 9일

이러한 시기에 남북협상이 있게 되었는데 내부한 유엔대표에게 기자들이 남북협상에 대하여 질의하자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선거결합의 발견이 목적이라 하였다. 한독경남도당부, 「민련 부연준위」에서는 협상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지³⁴⁾하고 나서 최소한 단정의 수립만은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48년 4월 28일에는 시민이 단선등록소를 습격하여 서류 등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4월 한달 영장 발행건수가 총 904건이며 포고위반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그 반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33) 『동아일보』 1948년 4월 2일 ;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1948년 4월 3일, 4일

34) 『민주중보』 48년 4월 2일, 5월 9일.

35) HQ, G-2 PR(48.3.18.3.194.30) ; 『민주중보』 48년 5월 2일.

노총부산지부에서는 공설운동장에서 메이데이행사를 거행하였으며 “노동자는 국가완성과 산업건설에 지장이 없이 그 자신의 복리와 향상을 위하여 싸우며 좌익의 파괴공작에는 즉시 방어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단선단정수립에 매진하려 하였다. 한편 당시 한 신문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 왕초산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추천단체명부가 나온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선거에 적극적이었던 우익단체의 확인이 가능하고 그들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³⁶⁾

그러나 한편에서는 당시 재일조선인 학교폐쇄 등의 학대의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부산·경남의 각종사회 단체, 특히 학생들은 각종성명, 성토회, 맹휴 등으로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단선반대, 통일정부수립으로 귀결되어 학생들의 맹휴가 끊이지 않게 되고 선관위원회 습격, 협박이 속출하였으며³⁷⁾ 계속해서 단선단정반대를 위한 극한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게 된다.³⁸⁾

이리하여 1948년 5월 8일 5·10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남조선단선단정반대투쟁총파업위원회」가 결성되어 파업을 결행하였다. 당시 일부 대중들은 선거를 저지하자는 내용의 빠라와 벽보를 부착하고 부산 근교 8개처에 봉화를 올려 반대를 고무하였다. 나아가 투표구 습격대(R대)를 10명씩으로 조직하여 통신망과 철도의 파괴하고 투표구를 습격하여 선거위원을 공격하고 선거인명

36) 『민주중보』 48년 5월 4일. 추천인에 대해서는 『민주중보』 48년 5월 5일자 참고.

37) 자세한 것은 『민주중보』 48년 5월 1일~8일자 참고.

38) 5·10 선거전후의 지방소요 상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김천영, 『앞의 책』, 1,111~1,115쪽 참고; HQ, G-2 WS(48.4.5), (48.5.7); HQ, G-2 PR(48.4.3), (48.4.14).

부를 탈취하는 등 선거반대투쟁을 중점적으로 벌어나갔다.

이에 경찰당국에서는 7일부터 수도치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격적 경비 상태에 돌입함과 동시에 7천여 경관과 과학적 기계화 기동부대 등 총 경찰력을 동원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10일 투표 당일의 경찰 경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수도청 내에 5·10비상경비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총사령관에 장택상총감 총지휘, 김태일부청장의 일선 지휘책임자로 선임한다. 정복경관은 투표소 2·3개소에 일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20명씩을 무장 배치하고 사복형사는 투표소 요소요소에 1명 혹은 2명 정도로 무장 배치한다. 그리고 기마대도 도로 요소요소에 3개 분대를 배치한다. 경찰서에는 3개 분대의 기관총을 장비한 기동부대가 배치된다. 그와 동시에 특별행동대, 자전거부대가 편성 배치한다. 그리고 무선전신기를 장비한 이동순찰대가 연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기로 한다. 그런데 경찰관만은 당일 경비 관계로 상오 7시부터 동 8시 동안에 전원이 전부 투표하기로 명령이 되었다 한다.³⁹⁾

한국 초유의 총선거가 시행된 5월 10일을 전후하여 남한 각 지방에는 약간의 폭동과 파괴사건이 일어났는데 UP서울특파원이 미군의 집계한 바를 보도한데 의하면 지난 7일 이후 사망자 57명, 부상자 27명, 행방불명 6명, 피검자 170명에 달하고 각지 철도 전차의 파괴, 선거사무소 급격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 경남지방은 대요 다음과 같다.⁴⁰⁾

8일 오후 8시반경 부산시내 주위 각 산봉우리 8개 처에 봉화가 오르고 9일 밤에는 초장동 투표소에 다이나마이트를 던진 사건과

39) 『동아일보』 1948년 5월 8일.

40) 『동아일보』, 『서울신문』 1948년 5월 12일.

영도 55투표구 사무소에 괴한 2명이 침입하여 흥기로 선거위원장을 살해하려다가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10일 오전 11시경에는 시내 중구 58투표소에 괴한 6명이 침입하여 위원 3명을 난타하고 입후보자 대리인을 중상시키고 명부를 탈취하였으나 3명은 체포되었다. 이날 남해군 삼동면 삼봉리 제6투표구 위원장 하봉삼(49) 집을 30여명의 폭도가 죽창을 들고 습격하여 선거인명부와 투표함 1개를 뺏어 갔다.⁴¹⁾

조 경무부장은 총선거가 무사히 끝난데 대해 5월 12일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이 담화 속에서 경무부장은 총선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서 완료된 것을 경축하는 동시에 선거사무 담당 관계자의 수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특히 향보단원과 각 청년단체원의 분투에 대하여 절찬을 하고 이러한 분투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말하였다. 9·10양일 동안에 걸쳐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⁴²⁾

<5.10선거 직전 9,10일 양일간 발생한 사건>

선거사무소 파괴 41	관공서 파괴 4
선거사무소 방화 11	양민주택 방화 36
선거시설 파괴 8	철도노선 파괴 51
전화선 절단 129	테로 111
도로 및 교량 파괴 8	선거공무원 부상 7
경무관 부상 8	관공리 부상 7

41) 『조선일보』 1948년 5월 13일.

42) 『경향신문』, 『서울신문』 1948년 5월 13일.

경무관서 피습 15	경찰관 피습 4
경찰관서 방화 2	선거시설 방화 1
기관차 파괴 10	열차 탈선 1
전신주 절도 141	봉화 86
선거공무원 피습 3	경찰관 피살 4
관공리 피살 3	입후보자 부상 1
양민 부상 37	폭도 사망 27 폭도 부상 31(기타 생략)

또한 미국당국에서 비공식으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5·10총선거 날을 비롯한 총선거반대의 5월 중 희생자는 사망자 수만 실로 323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³⁾

<5.10 선거 직전 발생한 사건>

살해 경관 32명, 폭도 153명, 기타 138명
파괴 통신기관 57건, 기관차 24건, 기타 철도 물품 6건, 도로 5건
교량 4건, 정부건물 9건, 발전소시설 7건
등록소 및 선거건물습격 58건
방화 기타 186건
5월중의 노동파업 15건
학교맹휴 9건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단정수립을 위한 선거에는 좌익계와 남북 협상파의 불참과 제주도가 제외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투표가 실시되었다. 전국 948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등록하여 실시된

43) 『조선일보』 1948년 6월 8일[주서울AP특파원 무어제공 합동]

1948년 5·10총선거는 198명(북한에 배정된 100석 제외)이 선출되었다. 이를 정당별로 분류하면 무소속 85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기타 정당과 사회단체 19명이 당선되었다. 이 당시 부산에서는 문시환,⁴⁴⁾ 허정, 박찬현, 허영호, 한석범 등 5인이었으며 무효표수가 12%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남 도내에서는 31명이 당선되었다.

Ⅲ. 제헌국회와 입후보자 현황

제헌국회는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⁴⁵⁾ 따라 동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총

44) 『민주중보』 48년 5월 13일.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득표자는 문시환이었다.

45) 선거법은 다음과 같다(군정청관보 법령 제175호 1948년 03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75~76쪽).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으로 만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좌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지선 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모약으로 인하여 준금지선 신고를 받은 자
3.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5. 일본제국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 좌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동법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정치범은 제외함
2. 1년 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은 도외함
3. 일제시대의 판임관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선거를 실시한 결과 북제주 갑·을 지역구(1949년 5월 10일 선거)의 2인을 제외한 전지역구에서 193인의 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게 되었다.⁴⁶⁾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4월 16일로 마감한 국회의원 입후보마감등록 상황은경상남도를 제외하고 778명으로 평균 5대 1이다. 그중에는 서울과 같이 13대 1이란 기록적인 숫자를 보이는 선거구도 있는 반면 무투표당선의 선거구도 7개소나 있다. 입후보자들이 단연 무소속이 많은 것도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인다.⁴⁷⁾

제헌국회 의원 선거는 200인의 정수에 대하여 입후보자수는 911인으로 평균 경쟁이 4.55대 1 이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187인을 필두로 48개 정당·사회단체가 선거에 참가하였다.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사회단체가 무려 43개로 해방 후 정당·사회단체의 난립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 중 1인만의 후보자를 낸 정당·단체가 26개이었고, 무소속이 입후보자 총수의 911인의 52%에 해당하는 478인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⁴⁸⁾ 제헌국회 선거

기 밀정행위를 한 자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5. 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6.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칠 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 급 교육자는 제외함

제4조 관공리는 제직중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음 단 정무관은 예외임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음

제6조 선거위원회 위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음

제7조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함

제2장 선거구역 및 의원수

46) 국회사무처, 1986, 『제헌국회 경과보고서』, 1쪽.

47) 『동아일보』·『조선일보』 1948년 4월 21일.

48) 제헌국회의 입후보자 총수 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196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선거사』에는 입후보자 총수가 948인으로, 같은 기관 홈페이지에는 911인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은

당시 정당·단체별 입후보자 상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경남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17명, 대독촉국민회 6명, 한국민주당 3명, 조선민족청년단 3명, 조선공화당 1명, 부산15구락부 1명, 대독촉부인회 2명, 대한독립청년단 1명, 조선예수교장로회 1명, 조선불교중앙총무원 2명, 고려진보당 1명, 청우당 1명, 민주의원 1명 등이 출마하였다.

<표 1> 정당·단체별 입후보자·전국과 경남당선자 1상황

시도	합계	무소속	대독촉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노동총연맹	대독촉농민	조선민주당	대한청년단	한국독립당	교육협회	유도회	단민당	대성회	민족통일본부	조선공화당	부산15구락부
합계	911	478	187	78	66	14	6	12	5	2	1	2	3	2	1	1	1	1
당선자																		
전국	200	85	55	29	12	6	1	2	1	1	1	1	1	1	1	1	1	1
경남	31	17	6	3	0	3	0	0	0	0	0	0	0	0	0	0	1	1
경남	147	72	35	6	11	7		2	1		1		1				1	1
서울	83	63	1						3									
경기	123	118	1	1		1			1					1				
강원	43	13	19		8		1			1								
충북	54	25	17	2	7													
충남	123	65	29	3	13	2	3	1				1						
전북	100	30	26	24	9	1		5										
전남	92	31	16	32	4	3	1							1	1			
경북	128	55	36	10	12		1	4				1	2			1		
제주	18	6	7		2					1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선거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기독교도연맹	대독촉부인	조선불교부인	한독정수협	대한독립청년단	조선예수교장로	대한부인회	조선여자국민당	대한정의단	대독촉국연맹	기독교청년회	전도회	여성단체총연맹	한국기독교연합	민주주의자유동	조선건국청년회	대한독립서북협	조선변호사협회	청년조선총연맹	청년당	조선법화회	대한민국총동원	조선불교중앙총	상무사회당	민족사회당	민중당	이재민동포자치	애국부인동지회	고려진보당	청우당	민주의원	민족통일건국전
입후보자	2	3	1	3	3	2	1	2	2	4	1	1	1	1	1	1	1	1	1	3	0	1	4	1	1	1	3	1	1	1	1	
당선자	전국																															
경남			2			1	1															2							1	1	1	
서울	1			2	1			2	2				1	1	1	1	1		1	1							1					
경기																																
강원																															1	
충북										3																						
충남				1																												
전북	1	1									1									2		1	1	1	1	1						
전남	1					1												1														
경북						1						1											1				1	2				
제주				1						1																						

※ 출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시도별 입후보자 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의원 정수 10인에 대하여 83인이 입후보하여 가장 경쟁이 치열하였다. 전남이 의원정수 29인에 92인이 입후보하여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경남은 의원정수 31인에 147명이 입후보하여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표 4>에 잘나와 있다.

입후보자의 학력별 상황을 보면 전체 입후보자 가운데 대학졸업이 29%인 273명, 중학졸업이 23%인 214명으로 학력별 입후보자와 당선자 상황은 <표 2>와 같다. 또한 대학졸업이 의원정수의 37%에 해당하는 74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졸이 44인이다.⁴⁹⁾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389쪽.

<표 2> 학력별 입후보자 · 당선자 상황

	합계	미기 재	독학 한문 수학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 대졸	대퇴	대졸	대학 원수 학
합계	911	125	46	106	13	214	6	47	58	22	273	1
당선자	200	3	9	25	3	44		4	34	4	74	
경남	147	10	11	9	6	35	3	15	6	4	47	1
서울	83	41				7	1	1	1	2	30	
경기	123	59		6		22		1	9	4	22	
강원	43		4	12	1	5		4	6	1	10	
충북	54		4	13	3	17		2	3		12	
충남	123	1	12	25	1	30	2	4	11	3	34	
전북	100	9		13	1	36		6	2	2	31	
전남	92	1	3	8	1	19		4	9	3	44	
경북	128	4	7	20		36		9	11	3	38	
제주	18		5			7		1			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입후보자의 직업별 상황을 보면 농·축산업이 입후자의 39%에 해당하는 362명으로 가장 많았던 바 직업별 입후보자 상황은 <표 3>과 같다. 참고로 당선자의 주요경력별 상황을 보면 일반 공무원 출신이 43인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출신이 22인, 신문인 출신이 22인이었다.⁵⁰⁾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391쪽.

<표 3> 직업별 입후보자와 당선자 상황

	합 계	정 치 인	농·축 산업	상 업	광· 공 업	운 수 업	건 설 업	금 용 업	약· 의 사	변 호 사	종 교 인	회 사 원	교 육 자	공 무 원	출 판 업	무 직	기 타	
합 계	911	41	362	75	26	2	2	2	4	46	13	23	101	23	3	23	69	96
당선자	200	12	86	3	2	3	1				4	5	14	5	10	15	22	18
경 남	147	7	61	7	9	1		1		2	5	1	9	6		2	27	9
서 울	83	8	1	2	1					8	3	2	28	2		3	5	20
경 기	123	9	46	5	2	1	1	1		4	1	1	19	3	1	1	4	24
강 원	43	1	16	7	3					3	1		4				1	7
충 북	54	1	31	2	2				1	3		1	5	1		1	1	5
충 남	123	3	56	10	4				2	5	1	4	11	5		7	7	8
전 북	100	5	53	13	1					5	1	6	8				3	5
전 남	92	4	37	13	1		1			8	1	2	6	3		9	4	3
경 북	128	3	55	13	3				1	8		6	11	2	2		17	7
제 주	18		6	3										1				8

※ 출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표 4> 1950년 5월 10일 경남지역 제헌국회 출마자 및
당선자 현황(1950.5.10) 총 31개 선거구 147명

연번	선거구	기호	정당명	성명 (한자)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학력	경력
001	제1 부산갑	1	대한노동 총연맹	김춘광 (金春光)	남	42	동대산동 2가	무직	명치대학졸	동장4년
002	당선	2	조선민족 청년단	문시환 (文時煥)	남	50	복천동 385	무직	소원 모스크바대졸	군수 경상남도상공국장
003		3	무소속	양성봉 (梁聖奉)	남	49	초량동 827	무직	상업졸	부윤·도지사, 농림부장관 자유당도위원장
004		4	무소속	김형덕 (金亨德)	남	34	부전동 231	공업	상업학교졸	회사사장
005	제2 부산을	1	무소속	김국태 (金局泰)	남	64	수정동 65	입법의원	일본대졸	경찰국장
006		2	대한독립 청년단	김경환 (金慶煥)	남	49	동광동 3가	무직	중졸	

007	당선	3	한국 민주당	허정 (許政)	남	53	초량동 354	무직	보성전문졸	
008	제3 부산병	1	무소속	김환선 (金煥善)	남	37	부용동 1가	실업	상업학교졸	회사사장 신문사사장
009		2	무소속	최찬수 (崔燦洙)	남	49	부평동 1가	농업	중졸	농업
010		3	무소속	박성수 (朴聖洙)	남	39	서대신동 1가	대학교수	일본대 법과졸	교원
011		4	조선민족 청년단	최명구 (崔命九)	남	43	부용동 1가	공업	중졸	신문사사장 청년운동
012	당선	5	한국 민주당	한석범 (韓錫範)	남	51	부용동 1가	공업	대졸	공업5년
013	제4 부산정	1	무소속	조철봉 (趙七鳳)	남	37	부산시 남항동 1가 48	의사	평양의전졸	의사
014		2	조선 민주당	옥초산 (玉超山)	남	35	신창동 3가	무직	대졸	청년운동
015		3	대동 청년단	한종욱 (韓宗郁)	남	35	중앙동 4가	무직	미기재	미기재
016		4	한국 민주당	오이상 (吳伊尙)	남	44	봉래동 2가	입법의원 공업	대졸	입법의원 장유공장경영
017		5	대한노동 총연맹	김억조 (金億祚)	남	40	부평동 2가	신문사장	중졸	신문사사장
018	당선	6	무소속	박찬현 (朴燦鉉)	남	32	부평동 4가	무직	미조리주교 육대학졸업	경남경찰국보안과장 신문사사장
019		7	무소속	김필애 (金弼愛)	여	51	초량동 3가	무직	여중졸 일본 대학사회과 수료	도장학사 적십자사과장
020		8	조선민족 청년단	이시환 (李時桓)	남	29	부평동 4가	무직	미기재	충남경찰국장 축청도당당장
021	제5 마산	1	무소속	손문기 (孫汶岐)	남	53	마산시 성호동 54	입법의원	대졸	대한모방직협회 역임 회사원 6년
022		2	민주의원	손봉조 (孫奉祚)	남	48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89의8	공업	중졸	기획처 경제계획국장
023	당선	3	무소속	권태욱 (權泰郁)	남	36	마산시 중앙동 2가	무직	대졸	치과재료상
024	제6진주 당선	1	무소속	이강우 (李康雨)	남	59	진주시 옥봉동 200	농업	대졸	교원 3년 농업
025		2	무소속	김성준 (金性淳)	남	31	진주시 본성동 250	상업	중졸	상업
026		3	무소속	하만복 (河萬복)	남	35	진주시 옥봉동 471	입법의원	한수	농업
027		4	무소속	최상석 (崔相錫)	남	35	진주시 평안동 158	농업	대졸	농업

부산·경남지역의 제헌국회의원 분석 / 23

028		5	무소속	조병래 (趙炳來)	남	37	진주시 봉곡동 91	변호사	대졸	변호사6년
029		6	무소속	류덕천 (柳德天)	남	45	진주시 신안동 386	농업	중졸	교원2년 군수
030		7	대독 촉국회	문해술 (文海述)	남	41	진주시 남성동 2	공업	중졸	공업
031	제7 진양	1	무소속	정순종 (鄭順鍾)	남	43	동대신동 1가	종묘업	중졸	공무원 15년
032		2	유도회	이현우 (李鉉佑)	남	65	진주시 상범동 994	농업	한문수료	농업경영
033	당선	3	무소속	황윤호 (黃潤鎬)	남	35	진양군 정촌면 가좌리	농업	중졸	면장 3년 공무원 13년
034		4	무소속	최병석 (崔秉錫)	남	52	서울시 중구 다동 38	변호사	대졸	변호사업
035		5	대동 청년단	류한구 (柳漢九)	남	30	진주시 수정동 521	농업	중졸	농업경영
036	제8 의령	1	대독 촉국회	윤병용 (尹炳用)	남	45	의령군 가조면 가조리	농업	중졸	
037		2	대동 청년단	최주홍 (崔柱洪)	남	44	의령군 의령면 사동	농업	중학중퇴	대한청년단단장
038		3	대독 촉국회	전임순 (田任淳)	남	64	의령군 칠곡면 외귀리	농업	한수	한약중상업20년
039	당선	4	조선민족 청년단	안준상 (安駿相)	남	50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농업	중졸	
040		5	대독 촉국회	이시목 (李時穆)	남	49	의령군 의령면 동동	농업	명치대학 졸업	
041	제9 함안	1	대독 촉국회	박노일 (朴魯一)	남	55	함안군 여항면 고시리	상업	배제학당 뽕 중퇴	경부보
042		2	대독 촉국회	이중섭 (李仲燮)	남	38	함안군 가야면 도항리	사무원	중졸	국민회부지부장 수리조합장5년
043	당선	3	조선민족 청년단	강옥중 (姜旭中)	남	40	서울시 중구 명동1가	문화사업	중학 3년중퇴	변호사 민족청년단 중앙당부이사
044		4	대독 촉국회	조용옥 (趙鏞玉)	남	42	함안군 가야면 말산리	농업	한수	진농한문교사, 대한청년단단장 국민회의전부장
045		5	한국 독립당	조억제 (趙億濟)	남	41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상업	중졸	토건업 10년
046	제10 창녕	1	무소속	조영환 (曹英煥)	남	49	창녕군 창녕면 교동	상업	부산상업졸	수산조합이사5년
047		2	대독 촉국회	김해권 (金海權)	남	32	창녕군 남지면 남지리	중등학 교장	대구사범 대졸	국민학교교원2년, 국민학교장3년 중학교장 1년

048		3	청우당	하기석 (河驥錫)	남	41	창녕군 창녕면 말흘리	농업	명치대학교 졸업	미기재
049		4	대독 축국회	김희찬 (金熙燾)	남	61	창녕군 창녕면 토천리	농업	서울중동 중학교졸	서울남대문구청 1년 면장15년
050	당선	5	무소속	구중회 (具中會)	남	51	마산시 완월동 305	농업	조도전 대학졸	중학교장13년
051	제11 밀양갑	1	무소속	염치준 (廉且俊)	남	42	밀양군 부북면 청운리	양조업	중앙고보 졸업	양조업
052		2	무소속	손영순 (孫永詢)	남	60	밀양군 밀양읍 교동	농업	법전졸	양정국장
053	당선	3	대독 축국회	이주형 (李周衡)	남	43	밀양군 밀양읍 내이동	교사	성대졸업	중학교교장 입법의원
054		4	대독 축국회	박일현 (朴一鉉)	남	38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무직	한수	국민회회장
055	제12 밀양을	1	무소속	이기원 (李起元)	남	59	밀양군 부북면 운전리	무직	한수	
056		2	대동 청년단	최성권 (崔成權)	남	28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무직	조대졸업	대한청년단장
057	당선	3	무소속	박해국 (朴海克)	남	65	대구시 중로2가 85	변호사	명치대학법 과졸업	변호사
058	제13 양산	1	대독 축국회	지영진 (池榮璉)	남	51	양산군 양산면 북부동	농업	경성진성교 중퇴	군수,부산심리원조 사위원 경상남도고문
059		2	무소속	배태성 (裴台星)	남	41	양산군 양산면 북부동	농업	명치대학 졸업	농업
060	당선	3	무소속	정진근 (鄭鎭瑾)	남	40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농업	일본조대중 퇴	농업
061		4	무소속	박임신 (朴壬申)	남	47	양산군 양산면 중부동	상업	공업학교 졸업	상사회사대표취재역 , 교원 2년 정미업 20년
062	제14 울산갑	1	무소속	김완환 (金完翰)	남	55	울산군 청량면 용암리	농업	중졸	금융조합장
063		2	한국 민주당	변동조 (卞東祚)	남	47	울산군 울산읍 문남동	무직	소졸	독립운동
064		3	무소속	박곤수 (朴坤洙)	남	51	울산군 대현면 궁천리	농업	소졸	면장 6년
065		4	대독 촉부인	최정구 (崔貞舊)	여	44	울산군 울산읍 계산리	무직	진명여상졸	교원
066		5	대독 촉부인	이정숙 (李貞淑)	여	27	울산군 방어진 방어리	무직	여고 원중퇴	애국부인회
067	당선	6	무소속	최봉식 (崔奉植)	남	56	울산군 온양면 남창리	농업	보통학교 졸업	면장4년

부산·경남지역의 제헌국회의원 분석 / 25

068		7	조선민족 청년단	김태근 (金太根)	남	28	울산군 울산읍 성남동	기자	대학중퇴	신문기자
069	제15 울산을	1	무소속	이완수 (李完洙)	남	47	부산시 서대신동 2가	무직	중졸	도속5년(공무원)
070		2	무소속	문창준 (文昌俊)	남	33	부산시 초량동 931	공업	고교졸업	회사중역
071		3	대독 축국회	김과환 (金鍋漢)	남	58	울산군 상북면 양시리	농업	중졸	농업
072		4	무소속	정인목 (鄭寅穆)	남	46	부산시 부전동 503	무직	소졸	상업
073	당선	5	무소속	김수선 (金壽善)	남	38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출판업	사범학교 졸업	교원
074	제16회 당선	1	조선 공화당	김약수 (金若水)	남	59	동래군 기장면 서부리	무직	중졸	항일투쟁
075		2	조선불교종 인종무원	김법린 (金法麟)	남	50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입법의원 의원	불국파리 대학교졸	입법의원
076	제17 김해갑	1	대독 축국회	인동철 (印東哲)	남	57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구	농업	중졸	면장 3년
077		2	무소속	박재홍 (朴在洪)	남	46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52	공업	고상졸업	조대청정과 3년중퇴 해양소년단본부장
078		3	무소속	임대천 (林大軒)	남	46	서울시 적선동 68	회사원	대졸	사원 5년
079		4	무소속	고덕봉 (高德鳳)	남	58	김해군 대서면 대지리	농업	소졸	
080		5	대독 축국회	최원호 (崔瑗浩)	남	51	김해군 김해읍 동상동 576	농업	대졸	경북상공공공장
081	당선	6	무소속	신상학 (辛相學)	남	35	중앙동 4가56	무직	소졸	청년운동3년
082	제18 김해읍	1	조선민족 청년단	김상규 (金尙圭)	남	38	김해군 진영읍 우묘리	농업	소졸	청년운동
083		2	무소속	김봉근 (金鳳勲)	남	38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의사	의전부속 강습소수로	의사10년
084		3	무소속	최신시 (崔申時)	남	45	김해군 진영읍 진영리	농업	중졸	진영과수조합장, 양돈조합장 신문기자협회장
085	당선	4	무소속	조규갑 (曹奎甲)	남	45	김해군 녹산면 미읍리	농업	한수	면장
086		5	무소속	노재건 (盧在乾)	남	35	김해군 서촌면 지곡리	농업	중졸	사원 5년
087		6	무소속	배종진 (裴鍾鎭)	남	44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농업	중졸	면장 3년
088	제19 창원갑	1	무소속	엄상섭 (嚴尙燮)	남	44	창원군 동면 용곡리	농업	보졸	영농

089		2	무소속	김용희 (金容熙)	남	61	창원군 동면 석산리	농업	미기재	
090	당선	3	대독 축국회	김태수 (金泰洙)	남	44	창원군 진해읍 풍호리	농업	중졸	공무원 5년
091		4	대동 청년단	김병진 (金秉鎭)	남	37	창원군 진해읍 경화동	무직	중졸	상업 5년
092		5	대독 축국회	문윤상 (文允祥)	남	43	창원군 대산면 갈전리	농업	미기재	
093		6	무소속	현재만 (玄在萬)	남	44	창원군 진해읍 회현동	토목업	중졸	회사원 8년
094	제20 창원을	1	무소속	노기수 (盧琪洙)	남	55	창원군 내서면 곡성리	기자	중졸	기자 5년
095		2	고려 진보당	김인형 (金仁炯)	남	32	창원군 웅남면 남지리	회사사장	미기재	
096		3	대독 축국회	전성진 (田聖鎭)	남	51	창원군 내서면 합성리	농업	중졸	농업
097		4	무소속	이기섭 (李起燮)	남	53	창원군 진동면 진동리	농업	상업학교 졸업	도정공장경영
098	당선	5	무소속	주기용 (朱基鎔)	남	51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	교육회 이사	중졸	읍장
099	제21 통영갑	1	대독 축국회	노기만 (盧己萬)	남	41	통영군 통영읍 항남동	기자	동경대학전 문부법과졸	경남일보시총국장
100	당선	2	한국 민주당	김재학 (金載學)	남	51	서울시 성북구 정암동68	회사사장	중졸	대한상공업협회· 서울성동구중앙시장 이사
101		3	무소속	서상호 (徐相顯)	남	61	통영군 통영읍 봉평리	무직	통영의성 학교졸업	경남은행전무취체역
102		4	무소속	지두호 (池斗浩)	남	45	통영군 통영읍 도천리	광업	대판공업전 수학교졸업	통영읍장 광산업
103	제22 통영을	1	대독 축국회	진홍기 (陳洪基)	남	60	통영군 장승포 석양리	농업	일본관상고 등학교졸업	어업10년
104		2	대동 청년단	심성환 (潘星煥)	남	26	부산시 중앙동 2차	무직	일본대학 전문부출	회사원
105	당선	3	무소속	서순영 (徐淳永)	남	49	전주시 서수정동	심판관	일본대학법 과졸업	고등문관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합격 · 법관
106	제23 고성	1	무소속	박용수 (朴容洙)	남	45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	농업	중졸	
107		2	무소속	정수영 (鄭瑒永)	남	38	고성군 동해면 정기리	농업	미기재	
108		3	한국 민주당	허재기 (許在基)	남	62	고성군 구만면 저연리	농업	한수	
109		4	무소속	이진홍 (李震弘)	남	61	고성군 장유면 은월리	농업	한수	

110		5	무소속	최갑환 (崔甲煥)	남	40	고성군 하림면 학림리	회사원	중졸	공업신문사사장
111	당선	6	무소속	이구수 (李龜洙)	남	36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회사원	보졸	기자 4년
112		7	무소속	최낙봉 (崔洛鳳)	남	39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농업	대졸	공무원 10년
113		8	대동 청년단	김성포 (金成布)	남	43	고성군 고성읍 수남동	농업	미기재	
114		9	대동 청년단	백석기 (白碩基)	남	38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무직	대졸	교원 10년
115	제24 사천	1	대독 축국회	정헌주 (鄭憲柱)	남	33	사천군 남양면 죽림리	회사중역	대졸	회사원
116		2	대독 축국회	류학열 (柳學烈)	남	35	사천군 삼천포 선구리	운수업	대졸	회사원
117		3	무소속	정갑주 (鄭甲柱)	남	42	사천군 삼천포 이금리	무직	대졸	공무원
118	당선	4	무소속	최범술 (崔凡述)	남	44	사천군 곤명면 용산리	대학 이사장	대졸	대학이사
119		5	대동 청년단	이쾌문 (李快文)	남	40	사천군 사천면 정의리	약종상	중졸	약종상
120	제25 남해	1	무소속	정재환 (鄭在煥)	남	45	부산시 서대신동	대학 이사장	임명관 대학졸	검사 16년
121		2	대동 청년단	최용선 (崔鎔鎭)	남	50	남해군 남해면 북변동	농업	한문수학	토목업18년 청년단장 3년
122		3	대독 축국회	최용근 (崔鎔根)	남	41	남해군 남해면 남변동	정미업	일본명치대 학졸업	산업조합이사 4년 정미업 5년
123	당선	4	무소속	박윤원 (朴允源)	남	40	남해군 남해면 북변동	농업	만주대동대 학교졸	기사9년 기사2년
124	제26 하동	1	대동 청년단	고종철 (高鍾哲)	남	38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인쇄업	중졸	국민회군지부장 읍장
125	당선	2	부산일오 구락부	강달수 (姜達秀)	남	44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농업	한수	중학교장
126		3	대독 축국회	이상경 (李相慶)	남	47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농업	대학법과 졸업	국민회군지부장 수리조합이사
127		4	무소속	황학성 (黃學性)	남	53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사법서사	중졸	하동읍장 3년
128	제27 산청	1	대독 축국회	최윤석 (崔潤奭)	남	45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	농업	대졸	중학교교장
129		2	무소속	이병홍 (李炳洪)	남	57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농업	한수	임정요인 반민특위조사부장
130		3	대독 축국회	오성주 (吳盛周)	남	52	산청군 산청면 부리	농업	중졸	면장 국민회군지부장

131		4	대독 축국회	정도화 (鄭道和)	남	38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신문업	대졸	출판업
132	당선	5	무소속	강기문 (姜己文)	남	39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회사원	대졸	회사원 12년 대한건설공사 사장
133	제28 함양	1	무소속	윤길현 (尹吉鉉)	남	49	함양군 안경면 금천리	저술가	조도전대학 정경과졸업	새한건설공영사 사장
134	당선	2	대독 축국회	김경도 (金景道)	남	45	함양군 함양면 하동	농업	경남사범 학교졸업	국민학교교원 8년 함양면장 4년
135		3	대독 축국회	김영조 (金永祚)	남	43	함양군 석북면 삼산리	농업	전주고보 졸업	독립축성국민회군 지부장 경작조합장
136	제29 거창	1	조선예수 교장교회	김상수 (金象壽)	남	57	거창군 거창읍 하동1구	약종상	소졸	현약종상30년 기독교장로10년
137		2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박달준 (朴達俊)	남	55	거창군 거창읍 중동	불교교무 원	소졸	항일군 종사 한국국군12년
138	당선	3	대독 축국회	표현태 (表鉉台)	남	45	거창군 월천면 동변리	농업	서울중동 중학교졸	면장 3년 거창교교장 7년
139		4	대독 축국회	신중목 (愼重穆)	남	47	거창군 거창읍 동동 1구	입법의원 회사원	대졸	입법의원 회사사장, 군수 1년
140	제30 합천갑 당선	1	대독 축국회	이원홍 (李源弘)	남	46	합천군 초계면 상치리	변호사	보성전문 법과졸업	변호사 9년
141		2	무소속	윤복주 (尹福注)	남	61	합천군 묘산면 팔기리	농업	미기재	
142		3	대독 축국회	박운표 (朴運杓)	남	55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농업	소졸	국민운동 군수
143		4	무소속	이경주 (李景濤)	남	48	합천군 합천면 영창리	농업	대졸	교장 9년
144	제31 합천을	1	무소속	최창섭 (崔昌燮)	남	50	합천군 삼가면 금리	농업	일본대학 사회과졸	신문기자 8년
145	당선	2	대독 축국회	김효석 (金孝錫)	남	54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농업	대졸	
146		3	무소속	이원영 (李愿永)	남	62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농업	미기재	
147		4	대독 축국회	김명수 (金命洙)	남	43	합천군 용주면 도수리	농업	조도전 중학졸	용주면장 11년

※ 출전 : 이 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 당선인현황 733~736쪽, 입후보자 가운데 문시환은 48.10.19퇴직 도지사 임명

Ⅳ. 제헌국회의원 당선자 분석

제헌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먼저 높은 투표 참가율이다. 좌익 계열과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으나 인구의 40.9%가 선거인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등록한 선거인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유효투표율이 96.4%였다. 다음으로 48개의 정당·사회단체가 선거에 참가하였다. 해방 후 우후죽순으로 난립되었던 정당·사회단체는 이 선거에서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이 43개, 1인의 후보자를 가진 정당·사회단체가 무려 26개이다. 특히 무소속 입후보자의 입후보와 당선자가 가장 많았다. 게다가 여성후보자의 당선자가 1명도 없었다.⁵¹⁾

투표율이 가장 높은 도는 강원도의 98.2%이었고, 가장 저조한 도는 제주도의 86.6%이다. 경남은 96.6%로 전국평균 투표율 보다 다소 높았다.⁵²⁾

총선거 결과 정당 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이 의원 정수 200인의 42.5%에 해당하는 85인으로 가장 당선자가 많았다. 다음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인, 민주국민당이 29인이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단체 중 1인의 당선자도 없는 정당 단체가 31개나 되었다.⁵³⁾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 결과에 대해 12일 3시까지 중앙선거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단체별로는 경남지역에는 무소속 15

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64, 392쪽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385~392쪽

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385~392쪽

명, 독촉 4명, 한민당 3명, 민족청년 2명 조공당 1명이며,⁵⁴⁾ 경상남도의 당선자(소속) 및 차점자는 다음과 같다.⁵⁵⁾

<경상남도의 당선자(소속) 및 차점자>

부산 갑구 문시환(50) 26,472(조선민족청년단)

차점 금형덕 10,331

부산 을구 허정(53) 21,390(독촉) 차점 금국태 20,719

병구 한석범(51) 11,021(한민당) 차점 박성수 9,853

정구 박찬鉉(32) 21,023(무소속) 차점 리시항 6,427

마산 권태욱(29) 13,457(무소속) 차점 손문기 8,613

진주 이강량(59) 7,313(무소속) 차점 류덕대 6,457

의령 안준상(50) 9,935(민족청년단) 차점 이시목 8,887

밀양 갑구 리주형(43) 12,438(독촉유도회)

양산 정진근(40) 12,184(무소속) 차점 지영진 9,052

울산 갑구 최봉식(56) 13,312(무소속)

울산 을구 김수선(38) 19,753

동래 김약水(59) 17,971(조선공화당) 차점 김법린 9,077

김해 갑구 신상학(35) 10,399(무소속) 차점 최원호 10,235

김해 을구 조규갑(45) 10,605(무소속)

통영 갑구 금재학(51) 17,414(한민당)

통영 을구 서순영(49) 16,288(무소속)

남해 박윤원(40) 16,260(무소속) 차점 정규환 14,710

하동 강달수(44) 17,014(부산 15구락부)

54) 『조선일보』 1948년 5월 14일.

55) 『조선일보』 1948년 5월 15일 ; 전국적 상황에 대해서는 동 신문 참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5.10총선 당시는 아직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무소속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직계인 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 한민당 등록자가 29명, 대동청년단이 12명,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⁵⁶⁾ 그러나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한민당 관련자가 60~80명으로 이들이 사실상 원내 최대세력이었다고 한다.⁵⁷⁾

경남의 경우 31명의 의원 중에 무소속이 17명, 국민회 6명, 한민당 3명, 민족청년단 3명, 기타 2명 등으로 전국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중 부산에서는 갑구의 문시환이 민족청년단이었는데 곧 경남도지사로 가면서 보선을 통해 대한국민당의 허영호로 교체되었고 나머지 을구, 병구, 정구의 허정, 한석범, 박찬현은 모두 무소속이었다가 한민당이 민국당으로 바뀌면서 민국당으로 가게 되었다.⁵⁸⁾

경남지역에서 당선된 자들을 소속 단체별로 보면 무소속이 박찬현, 황윤호, 권태욱, 이강우, 구중희, 박해극, 박윤원, 최봉식, 김수선, 강기문, 신상학, 조규갑, 정진근, 주기용, 최범술, 서순영, 이구수 등 17명, 김경도, 김효석, 이원홍, 표현태, 김태수, 이주형 등 6명, 조선민족청년단으로 안준상, 문시환, 강육중 등 3명, 한국민주당으로 김재학, 한석범, 허정 등 3명, 부산 15구락부 강달수 1명, 조선공화당 김약수 1명이다.

1950년 5월 10일 경남지역 제헌국회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의 주요경력은 <표 5>에 정리해 두었다. 이들의 주요경력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본 논문의 목적을 의도를 파악하는

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1,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616~617쪽.

57) 대한민국국회 민의원사무처, 1958, 『국회10년지』, 85~87쪽.

58) 대한민국국회 민의원사무처, 1958, 『국회10년지』, 30쪽.

데에는 크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특히 약력은 자료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상이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표 5> 1950년 5월 10일 경남지역 제헌국회 당선자 주요경력

성명 (한자)	정당명	학력	주요경력 및 활동		비고
			해방전	해방후	
문시환 (文時煥)	조선민족 청년단	東萊 東明 學校. 東京 正則英語學 校 莫斯科 共產大學	1920년 조선공산당 가입 귀국 후 신문기자 재직 중 義烈團 관련 2년간 복역	建準 조직을 위한 활동 후 東萊郡守, 경남 道勳局長, 同 상공국장 역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경 남도지사	48.10.19 퇴직 도지사 임명 보궐당선 허영호
허정 (許政)	한국 민주당	보성 전문 졸	1919년 渡佛. 生法韓國民 會長 1920년 渡美. 뉴욕韓人共 同會長, 北美韓人僑民總團 長, 三一申報社長, 歐米委 員部 委員, 太平洋雜誌 편 집국장 등	한국민주당 상무위원 교통부장관	
한석범 (韓錫範)	한국 민주당	釜山公立商 業學校 卒 대졸	공업5년 3·1운동에 참가 학원 강사 역임 實業에 종사	해방 후 부산서부치안대 대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산지부 위원장, 한국민 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역임 부산부민국민학교 학부형 회장 부산여자중학교 후원회장 한국전쟁 중 납북	
박찬현 (朴璨鉉)	무소속	미조리주교 육대학 明大 法學部	滿洲 奉天省下에서 농장경 영 경남경찰국보안과장 신문사사장	해방후 귀국 밀양군, 부산수상경찰서장, 南朝鮮大學 강사, 제 2회 경찰청 公安課長을 역임 국회의원	
권태욱 (權泰郁)	무소속	대졸 日本東京中 央大學 法 學部	치과재료상 일본동경중앙대학 재학시 동경유생 반일운동에 관련 수감 빈민구제사업에 다년 종사	馬山歸還同胞會 회장 등 제헌의원, 2대의원 馬山工科學館 館長 역임	

이강우 (李康雨)	무소속	대졸 普成專門 중퇴 日本大學	교원 3년 농업 普成專門 재학 중 反日演 說로 수배 중국으로 도피 이후 일본에 유학 日本大 學 재학 중 3·1운동에 참 가하여 3년 복역 후 학업 을 마친 晋州高普 교원 3년 역임 진주시립근로학원 원장	해방 후 한때 鑛産業 종사 제헌의원 한국전쟁 중 납북됨	
황윤호 (黃潤鎬)	무소속	중졸 晋州中學	면장 3년 공무원 13년 卒後 營農 公務員으로 13년 生活	해방후 진주면장 제헌의원 국회프락치사건에 連係 되어 6년 징역을 받고 복역 하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	
안준상 (安駿相)	조선민족 청년단	중졸 早大政經科 이년 중퇴	立山學塾院長, 古今社, 의령 협동조합, 마산고무공업사, 약초제배원 등 경영	해방후 경남한글문화보급 회장 부산동아대학리사 독촉국민회부산지부회장 민족청년단경남단부리사 釜山一五俱樂部幹事 등 제헌의원	
강옥중 (姜旭中)	조선민족 청년단	중학3년 중퇴	변호사 민족청년단중앙당부이사 변호사시험 합격	해방후 白民會 및 公論社 를 創設하여 社長, 조선법 학회 상무리사, 李僑先生 記念事業會 理事, 人權擁 護同盟 朝鮮支部 中央委員 等 歷任 國會法制司法委員	'50.2.10 푸 락치사건 ⁵⁹⁾ 으 로 자격상실
구중회 (具中會)	무소속	일본조선대학 普成中學校 日本 早稻 田大學 高等 師範部 英文科 卒	중학교교장13년 삼일운동에 참가 1년간 복역 普成中學校 敎諭生活 多年 滿洲에서 營農 한편으로 避亂同胞 救濟事 業에 從事	해방후 목포여자중학교장, 마산중학교교장 등 제헌의원	
이주형 (李周衡)	대독 촉국회	京城大學法 文學部史學 科	중학교교장 입법의원 私立正進學校를 경영하다 가 戰中 廢校 當함	해방후 경남미군정교문 독촉국민회밀양군지부장 過政立法議院民選議員 歷任 밀양중학교 창립 교장 제헌의원	

59) 국회프락치사건이란 제2회 국회가 개최된 후 1949년 5월 18일 소장과 의원 3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된 것을 위시하여 동년 7월 30일 제4회 국회가 개최되는 날까지 전후 3회에 걸쳐 13명의 동성화(同成會) 소속인 소장과 의원이 구속된 것을 세칭함(국회사무처, 1986, 『제헌국회 경과보고서』, 20쪽).

박해극 (朴海克)	무소속	명치대학 법과	변호사	해방후 한국민주당 경상북 도 도당부위원장에 선임되 어 1949년 현재에 이름	
정진근 (鄭鎭瑾)	무소속	조도전대중 早稻田大學 정경과 졸업	농업대학 졸업 후 중국에 건너가 활동 귀국 후 농업 에 종사	귀국후 영농 제현의원	
최봉식 (崔奉植)	무소속	보통학교	면장4년 사서삼경을 비롯하여 10여 년 간 한학전수, 한방의학 研究 울산군 온양면장, 문생면 장 등	해방후 다시 울산군 온양 면장 제현의원	
김수선 (金壽善)	무소속	사범학교	교원사범학교 졸업 교원, 산업조합 서기, 營農 多年	해방후 주식회사문화당 상 무취체역, 조선교육연구회 총무 등 제현의원, 1950년 의원	
김약수 (金若水) 金 料 熙 (본명) 金 料 全	조선 공화당	중졸 京城工業傳 習所 東京正則英 語學校 중 日 本 大 學 사 회 과 에 입학	항일투쟁 1917년 吉林 영농 1920년 4월 동경에 勞動同 友會 발기 코스모俱樂部 및 黑壽會 가입 北星會 조직 기관잡지 農 民運動 기자 1923년 소요 상해죄로 징 역 6월 1924년 조선공산당 조직 노동총동맹, 청년총동맹 北風會 창립 제1차 조공조직 참가로 6 년반 복역	해방후 한국민주당 간부 관선 립법의원, 조선공화 당 위원장 제현의원	국회부의장 49.7.2 사임 '50.2.10 푸 락치사건으로 자격상실
신상학 (辛相學)	무소속	소졸	청년운동3년 상업 從事	해방후 독촉국민회 경남도 간부 國青慶南 道副委員長 民族青年團 慶南團部 副團 長 등 제현의원	
조규갑 (曹奎甲)	무소속	한수 早稻田大學 卒, 北京大 學 聽講	귀국후 다년 영농	해방후 민선면장, 慶南政 治工作隊 대장	
김태수 (金泰洙)	대독 촉국회	중졸	공무원 5년 다년 영농생활	해방후 독촉국민회 지부 간부 제현의원	
주기용 (朱基鎔)	무소속	중졸 동경고등사 범학교 수 학과	읍장 1927년 평북 오산고등보통 학교 교무주임 1928년 배화여자고등보통 학교 교원 1933년 1935년까지 오산고 등보통학교장	中央廳 文教部 普通教育局 長 就任 제현의원	

김재학 (金載學)	한국 민주당	중졸 大阪工業專 修學校	대한상공업협회이사 서울성동구중앙시장이사	제헌의원 1950년 현재 주식회사 건 설사장, 서울獵友會 參與, 경기도운수협회 리사, 조 선토건협회 리사, 城東中 央市場 理事長, 한민당 중 앙집행위원, 국회의원	
서순영 (徐淳永)	무소속	일본대학법 과	고등문관사법과합격 조선변호사시험합격, 법관 변호사 개업	大邱控訴院 판사, 전주법 원 상석판사 등 제헌의원	
이구수 (李龜洙)	무소속	보졸 日本大學法 科	기자 4년 신문기자, 회사원생활	영농 제헌의원	'50.2.10 푸 락치사건으로 자격상실
최범술 (崔凡述)	무소속	대졸 大正大學 佛教科	朴烈 등과 革命運動에 중 사 被檢後 佛教社 社長, 朝鮮佛教總本建設 宗憲起 草委員 수차 피검 복역,	佛教中央總務院 총무부장, 國民大學 리사	
박윤원 (朴允源)	무소속	여수수산학 교 東京水 産 講習 所 修業 滿洲大同大 學	기사9년 기사2년 수산시험장에서 연구 渡滿 吉林省下 營農 그곳 에서 高麗同志會에 가입, 독립운동에 가담	해방후 귀국 海南歸還同胞會 總務 제헌의원 1950년 現 國會 議員	'50.2.10 푸 락치사건으로 자격상실
강달수 (姜達秀)	부산일오 구락부	한수	중학교장 영농	한민당 진주지당 창립동맹 원 獨促國民會 진주지부장, 農總慶南道聯盟 조직부장 일오俱樂部 部員 제헌의원	
강기문 (姜己文)	무소속	대졸 大阪浪連中 學校 大阪 工 科 大學 中退	회사원 12년 대한건설공업사 사장 대학중퇴 후 회사원 生活 大阪市 硝子販賣事業에 從事	해방후 서울남산동에 姜己 文商店 設立하여 硝子販賣 및 貿易業 제헌의원	
김경도 (金景道)	대독 촉국회	경남사범 학교	국민학교교원 8년 함양면장 4년 居昌, 西上, 休川, 安義, 咸 陽國民學 校 등 교원생활 17년간 産業會社 支配人,	食糧營團 소장 등 제헌의원 1950년 현재 咸陽煙草耕作 組合長, 獨促國民會 咸陽 支部 參與, 咸陽面長 등	
표현태 (表鉉台)	대독 촉국회	서울중등중 학교 사범학교	면장 3년 거창고교장 7년 양조업에 다년 종사, 8년간 咸陽面長 역임 居昌 商業學校 校長 역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간부, 조선민족청년단 居昌郡團 이사장 등 역임 제헌의원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 보했으나 낙선 1967년 현재 居昌商高 校 長	

이원홍 (李源弘)	대독 족국회	보성전문 법과	변호사 9년 잠시 교원생활	한민당 中執, 과정보무국 사무관, 동사법부변호사, 독촉국민회 常執, 한민당 대구시당부 부위원장	
김효석 (金孝錫)	대독 족국회	명치대학법 과 日本大 學 法學部 高等研究科	영농생활	한국민주당 中執, 독촉국 민회 中執 겸 농림부장, 민족통일총본부 청년부장, 제2대 내무차관, 제 3대 내 무부장관	49.1.5퇴직내 무부차관임명, 보령 최창섭 당선

※ 이 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조선신사대동보』 (미상), 『대한민국인사록』 (강진화편, 내외공론사, 1949), 『전선부읍회의원명감』 (藤村得一편, 조선경세신문사, 1931), 『왜정시대인물사료』, 『소화사상통제사자료』 (輿平康弘편, 고려서림 1989 복간), 『용의조선인명부』, 『조선인사홍신록』 (조선신문사편, 1922-1935),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대한제국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조선연감』 1947, 『조선연감』 1948(조선통신사),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상의인명검색국사편찬위원회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독립기념관홈페이지(<http://www.i815.or.kr/>) : 참고로 학력 난에 중퇴나 수료했을 경우 해당내용을 표기를 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교명만을 적시했음.

V. 맺음말

이상에서 경남지역의 제헌국회 입후보자와 당선자에 대해 직업별, 학력별, 소속정당·사회단체별 등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이 당초 본고의 목적이었던 제헌국회의 입후보자와 당선자를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지방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대해 온전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하에서는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입후보자에 대해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소속정

당·사회단체별 현황을 정리한 다음, 제헌국회(911명중 부산·경남 147명)와 제2대국회(1,1196명중 부산·경남 173명)에 입후보한 인물의 내력과 성격변화 또는 특징을 일제 강점기의 가계적 환경이나 정치·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하여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당선자에 대해 직업별, 학력별, 소속정당·사회단체별 현황을 정리한 다음 주요현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즉 제헌국회의원의 인물분석이라는 기본틀 위에 제헌의회 입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이 일제강점기 어떤 정치·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들이 8·15해방이후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왜 출마하게 되었는가, 그들을 출마하게 한 정치사회적인 동기나 배경은 무엇인가, 주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상의 문제이다. 제헌국회의 입후보자와 당선자의 성격변화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해, 선거직전 입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광고’ 등에 주목하여 정치·사회적 배경을 보다 풍부하게 정리하고, 입후보자 및 당선자 가운데 생존자나 목격자 등을 파악하여 증언을 채록하여 활용하는 등, 특정지역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성격변화에 구체성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흔히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가 8·15해방 이후 ‘반민주행위자’라고까지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이 보완되어 제헌국회와 제2대국회 입후보자나 당선자들의 인물내력이나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주요 현안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연동시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의 정치적 리더십 성격과 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현대일보』 『대동신문』 『민주중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48, 1949, 1950, 『국회속기록』, 『대한민국
직원록』, 1952
대한통신사, 1953 『대한연감 1953』
김진학·한철영 공저, 1954, 『제헌 국회사』, 신조출판사
내무부통계국, 1959, 『한국인구조사 1955』, 청구출판사
한태수, 1961, 『한국정당사』, 신태양사
이기하, 1961,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1963, 『한국군사혁명사』 1권, 동아
출판사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1,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
국회』, 광명인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선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정당사』, 보진재
김운태, 1976, 『한국현대정치사 제2권:제1공화국』, 성문각
강인수, 1980, 「한국제헌국회의 교육법제정 과정 연구」, 고려
대학교
한배호·진덕규 외, 1981,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부산일보사연구실 편집, 1983·1984 『(비화)임시수도천일』 상·하
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한승주, 1983,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종로서적
심지연, 1984, 『한국민주당연구 II』, 창작과비평사

- 부산일보출판국, 1985, 『임시수도천일』
- 박용만, 1986, 『(제1공화국)경무대 비화』, 내외신서
- 이기하·심지연·한정일·손봉숙, 1987, 『한국의 정당 제1편 : 8·15에서자유당붕괴까지』, 한국일보사
- 박승규, 1987, 「1952-1960 전남지방 자치선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유용하, 1988, 「제1공화국수립을 전후한 토지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윤대운, 1989 「제1공화국 권위주의체제와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건국청년운동협의회편, 1989,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 한배호편, 1990, 『한국 현대정치론. 1 : 제1공화국의 국가형성, 정치과정, 정책』, 나남
- 이기명, 1990, 「5.10 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정치세력의 대응」, 연세대학교
- 백운선, 1992, 「제헌국회내 '소장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김운태, 1992,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 김득중, 1994, 「제헌국회의 구성과정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 이임하, 1994, 「1950年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박찬표, 1995, 「한국의 국가형성-반공체제의 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고려대
- 백영철, 1995, 『제1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 이지훈, 1998, 「제헌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한양대학교

- 송혜경, 1998, 「제1공화국 인사행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수경, 1998, 「제헌국회와 정치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원, 1999,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헌정제도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서희경, 2001, 「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영에 관한 논쟁 연구」, 서울대학교
윤지현, 2002, 「국회 프락치 사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이정은, 2003, 「제헌국회기 청구회.신정회의 정치활동과 노선」, 연세대학교
이강수, 2003, 『반민특위연구』, 나남
허 중, 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김득중, 2004,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김동만 ; 고성만[공]글·사진, 2004,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강혜경, 2005, 『제1공화국 초기의 국민통제』, 한국학술정보